



FY2011 일본 손해보험 대형 5개사 보험료 수입 증가

박정희 선임연구원

■ FY2011 일본의 대형 손보 5개사 보험료(잠정) 수입은 자동차보험 및 지진보험의 성장에 힘입어 전년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
- 보험료 규모는 도쿄화재(東京海上日動)가 전년대비 4.8% 증가한 1조 9,081억 엔으로 선두를 유지하였으며, 이어 손보재팬(損保ジャパン)이 3.4% 증가한 1조 3,682억 엔, 미츠이 스미토모해상(三井住友海上)이 4.8% 증가한 1조 3,340억 엔 등의 순으로 나타남.
 - 특히 자동차보험 실적은 미츠이 스미토모해상(三井住友海上)이 전년대비 3.1%, 도쿄화재(東京海上日動)가 2.4% 증가하여 양호한 성장을 시현하였음.
- 그 외 아이오이닛세이도와(あいおいニッセイ同和)손보와 니혼코아(日本興亜)손보가 전년대비 각각 2.0%, 3.1% 성장한 1조 1,695억 엔과 6,570억 엔의 보험료 수입을 기록하였음.

■ 자동차보험은 고연비 친환경 자동차인 이른바 ‘에코카’ 보조금이 수반되는 신차판매 증가로 개인 계약이 호조를 보였으며, 자동차 운전자의 의무가입인 자동차배상책임 보험의 보험료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.

- 지난해 말 에코카 보조금 제도¹⁾가 부활되면서 신차판매가 크게 늘어났으며, 이로 인해 FY2011 하반기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임.
 - 보조금 지급과 더불어 에코카 감세 계획²⁾이 기존보다 3년 연장된 2015년 4월까지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 판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.

1) 본 제도는 기존의 가솔린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보다 일정수준 이상 연비성능이 뛰어난 친환경차량을 구입할 시 정부에서 구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지난 2010년 9월 종료되었다가 지난해 말부터 다시 부활한 제도임.

2) 에코카에 대한 자동차 중량세 및 취득세 등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특례 조치로 2011년 12월 일본 정부 내각회의에서 승인된 2012년 세제 개편(안)에 따라 당초 2012년 종료되는 에코카 감세 계획이 3년 연장됨.

- 일본자동차판매연합회와 전국경자동차연합회에 따르면 3월 신차판매 대수는 49만 7,959대로 전년 동기 대비 78.2% 증가했으며, 최근 7개월 연속 일본의 신차판매 대수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- 동일본 대지진 이후, 5대 손해보험 대형사의 지진보험 가입건수는 전년대비 17.5% 늘어난 550만 건에 달하고 있으며, 지진 관련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.
- 일본 손해보험협회는 동일본 대지진 피해자들이 받은 보상액이 약 1조 2,241억 엔으로 지난 1995년 고베 대지진의 보상규모에 비해 약 5배가 높은 수준이라고 밝힘.
 - 지역별 보상금액은 미야기현이 45.7%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, 이어 후쿠시마현, 이바라키현 등의 비중 순으로 나타남.
- 한편,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도 충분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진보험제도³⁾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일본정부는 지난 6일 지진보험의 보험금 지급한도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.

(산케이 신문, 시사통신, 교도통신 외 4/6~9 종합)

3) 보험금 지급한도액은 종래 5조 5천억 엔에서 6조 2천억 엔으로 확대, 이에 대한 부담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보험금을 늘려 민간 부담액은 경감한다는 방침임.